“대한독립만세” 그날의 외침, 다시 울려 퍼지다

대구오페라하우스, 20~23일 광복 80주년 기념 ‘264, 그 한 개의 별’

독립운동가 이육사 삶·문학 다룬 창·제작 오페라
수감 번호 264번, 예명으로 쓰게 된 실화 모티브
지휘자 이동신·연출가 표현진 필두 4막 구성 조명

80년 전 해방과 광복의 감격이 세월이 흐른다고 희석될 수가 있을까? 감히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해마다 잊지 않고 그날을 기리고 기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느닷없이 닥친 해방이지만 일제 치하에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나섰던 선조들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선보이는 특별 공연, 김성재의 ‘264, 그 한 개의 별’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64, 그 한 개의 별’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3년 간 진행한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 사업의 결실로 탄생한 창·제작 오페라이다. 일제강점기 지역에서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이육사(본명 이원록)의 삶과 문학을 다룬 작품이다. 지난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초연됐으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제1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청라언덕’의 작곡가 김성재가 작곡을, 대한민국오페라축제 대상작 ‘윤심덕, 사의 찬미’의 대본가 김하나가 대본을 맡았다. 이육사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며 받았던 수감 번호 264번을 예명으로 사용하게 된 실화를 모티브로, 그의 치열한 삶과 문학 세계를 4막 구성으로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지휘자 이동신, 연출가 표현진을 필두로, 투쟁 이육사 역에 테너 권재희, 노성훈, 문학/남편이육사 역에 바리톤 김승철, 제상철, 안일양 역에 소프라노 이윤경, 김진솔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정갑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은 “‘264, 그 한 개의 별’은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창작과 제작 역량을 집중해 완성한 자랑스러운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 인물 이육사의 삶과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리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시간은 오는 20일 오후 2시, 21일·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3시(30분이다. 입장권은 2만 원~10만 원.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53-430-7400.

송태섭 기자 tssong@idaegu.com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작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공연 장면.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 속으로

15일 19시30분 안동문화예술회관 웅부홀 창작오페라 ‘264 낭독콘서트’

이육사 시인 동생 손녀 ‘이영규 작가’ 대본 집필
시·수필 상징 살린 전통 오페라+현대 낭독 공연
연극 브릿지 내레이터 도입·반원형 무대 설치도

안동에서도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육사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육사의 삶과 투쟁을 다룬 창작 오페라인 ‘264 낭독콘서트’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안동문화예술회관 웅부홀에서 개최된다.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대본 공모 당선작으로 이육사 시인 동생의 손녀인 이영규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으며, 홍신주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이육사의 수인번호 264와 17번의 투옥을 통해 일본 식민지 시대의 폭압을 직접 겪었던 그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오페라와 현대 낭독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이육사의 시와 수필 속 상징과 은유를 살린 작품이다. 연출가 한승원은 시집을 형상화한 반원형 무대 세트를 설치해 웅부홀의 공간을 극대화하며, 연극 브릿지 내레이터를 도입해 시가 오페라로 변화하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자 지중배를 비롯해 테너 김은국, 소프라노 마혜선, 메조소프라노 김진주, 바리톤 이승왕, 한명원, 베이스 김대엽, 테너 이상민 등이 출연하며, 코리아쿱오케스트라와 안동시립합창단이 협연한다.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R석 2만 원, S석 1만 원이다. 문의: 054-840-3600.

또 안동문화예술회관 상설갤러리와 5갤러리에서는 '다시 만난 이육사 전(展)'이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있다. 김진욱 기자

이우석 ‘I am that I am…’전
16~29일 CL갤러리서 개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오롯한 화두는 ‘존재’이다. 이우석은 실존주의자처럼 끊임없이 ‘존재’를 붙잡고 씨름하는 작가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해답을 찾는 몸부림이 이 작가의 작업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본질에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탐색하는 이우석 작가의 19 번째 개인전, ‘I am that I am-Jouissance’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CL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우석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우리들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문’을 화폭 위에 형상화한다. 지문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누구와도 같지 않은 불변의 고유성이다. 개개인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시 제목 ‘I am that I am(나는 나다)’은 존재의 선언이다. 모세에게 나타난 신의 말처럼, 이우석의 이번 전시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존재론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80억 넘는 인간들마다 각기 다른 지문이야말로 존재의 담보인 것이다. 그 깨달음은 “쥬이상스(Jouissance)-희열’로 표현된다.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고민, 억압과 통제로부터 해방된 상태, 진정한 자아가 누릴 수 있는 극한의 기쁨을 의미한다. 바로 그 ‘희열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송태섭 기자

이우석 작품 ‘I am that I am-Jouissance03’ 2025. CL갤러리 제공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음 6월 20일)

백운운세 김정용 010-5898-3050 www.backun.com

子 (쥐) 96년생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니 한번 더 확인하라. 84년생 마찰이 예상되니 자신의 의견을 굽혀라. 72년생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 감당하기 힘들다. 60년생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한 번쯤 생각하라. 48년생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깨끗이 승복하라. 36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丑 (소) 97년생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면 목적을 달성한다. 85년생 떳떳하지 못한 길은 피해 가도록 하라. 73년생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61년생 생활하다 보면 의외의 상황을 접한다. 49년생 수수한 모습을 지향하는 것도 보기에 좋다. 37년생 갈등이 골이 자존심과 관련 있다면 마음을 열어라.

寅 (호랑이) 98년생 일거양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 86년생 과소비는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74년생 여성은 바라는 것을 얻고 남성은 실수를 범한다. 62년생 부산하게 움직여도 얻는 것은 별로 없다. 50년생 상대를 헤아리지 못한 만큼 상대도 마찬가지. 38년생 대립이 극을 달리면 더 위험하고 손해 보기 쉽다.

卯 (토끼) 99년생 추풍령을 넘어갈 때는 굽이마다 쉬어가라. 87년생 낮은 자세로 움직이면 속도가 떨어진다. 75년생 손바닥의 물건도 소유하지 못하니 보람이 없다. 63년생 맡은 일에 충실해야 손실이 없다. 51년생 강직한 모습도 좋지만 일관성이 없으면 소용없다. 39년생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辰 (용) 00년생 기회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릴 것. 88년생 생소해도 자신감만 있으면 괜찮다. 76년생 판단이 옳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64년생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참을 줄도 알아라. 52년생 후미진 곳에 가지 않게 조심하라. 40년생 바쁘게 다녀봐도 별다른 성과는 없다.

巳 (뱀) 01년생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 89년생 현재 일에 충실하고 다른 것에 관심 마라. 77년생 감정은 기복이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해라. 65년생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나치면 곤란하다. 53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 41년생 날개를 크게 펼치고 비행하니 부러운 것이 없다.

午 (말) 02년생 큰 승부를 걸 수 있는 호기다. 90년생 주관이 확고하다면 실패할 수 없는 운이다. 78년생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것은 발전의 일부분. 66년생 돌아올 때와 떠날 때를 구별 못 하면 초라하다. 54년생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에 매달리니 힘들다. 42년생 미진했던 일들이 풀리니 살 것 같다.

未 (양) 03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소식 들릴 운. 91년생 맡은 일에 충실하면 위치가 상승한다. 79년생 예민한 반응은 손실을 초래하니 여유를 가져라. 67년생 결자해지를 헤아려 행동으로 옮겨라. 55년생 인재가 모여있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 4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실천하면 복이 된다.

申 (원숭이) 04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라. 92년생 순조롭던 일도 과열되면 중단되기 쉽다. 80년생 남의 간섭이 잦아지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라. 68년생 정보교환이 도움을 주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56년생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전에 기반을 구축하라. 44년생 사업자는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다.

酉 (닭) 05년생 고심한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발표해라. 93년생 자세에 따라 오늘의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 81년생 여유가 없으면서 느긋하게 행동하지 마라. 69년생 긴장이 지나치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57년생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라. 45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戌 (개) 06년생 공들여온 결과물이 비로소 나타난다. 94년생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니 운수 대통이다. 82년생 자기 개성에 어울려야 보기에도 좋다. 70년생 무엇을 실행하고 요구할지 생각하고 움직이자. 58년생 배우자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배치될 수 있다. 46년생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亥 (돼지) 95년생 한 번 내비쳤던 의사를 절대 번복하지 마라. 83년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감추어져 있다. 71년생 이성보다는 감성에 매달리는 것이 효과적. 59년생 반목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라. 47년생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동은 지양하라.